

2019년 10월 2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7%

미 증시 변화 요인: 개별 기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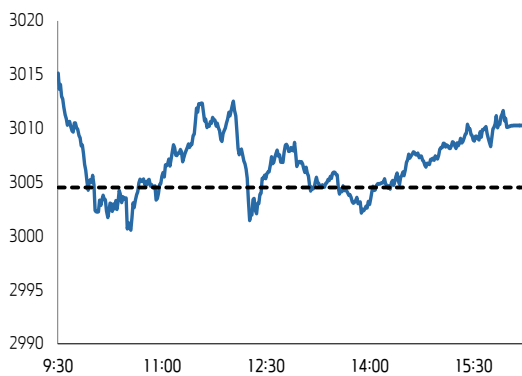
미 증시는 다우가 3M 실적 부진으로 하락했으나, 나스닥은 MS와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는 등 실적 결과에 따라 등락을 보임. 한편, ECB 드라기 총재 마지막 기자회견은 시장 친화적이었지만 영향은 제한되었고, 영국 존슨 총리는 12월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가 영향은 크지 않음. 결국 미 증시는 증시 주변 보다는 실적에 주목하며 변화한 실적 장세의 모습을 보이며 혼조 마감(다우 -0.11%, 나스닥 +0.81%, S&P500 +0.19%, 러셀 2000 -0.17%)

ECB는 금리를 동결했으나, 11월 1일부터 200억 유로의 QE 시작을 재확인. 한편, 마지막 기자회견을 단행한 드라기 총재는 “최근 경제지표는 유로존 경기의 장기 부진을 말해주고 있다”라며 경기 우려를 표명. 특히 “성장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부터 정책을 실시 해야 한다”라고 조언. 결국 드라기 총재는 최근 연준 위원들과 같이 통화정책 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영국 존슨 총리는 “EU가 브렉시트 연장안에 동의한다면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추진한다”라고 발표. 이를 위해서는 2/3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당에 협조를 구함. 코빈 노동당 총재는 “총선을 지지하지만 EU 입장을 먼저 알고 싶다”라고 언급해 EU가 브렉시트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 12월 12일 영국 조기 총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존슨 총리의 발언 이후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코빈 총재의 발언 이후 약세폭이 축소

미 증시는 이러한 유럽 이슈보다 실적 시즌에는 실적을 중시 여기며 변화. 3M(-4.07%)의 경우 중국 경기 둔화와 무역 분쟁 장기화를 이유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해 다우 지수 하락을 이끌었음. 반도체 업종은 램리시치(+13.90%)가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7% 급등. 더불어 낙관적인 클라우드 매출을 기반으로 MS(+1.97%)가 상승한 점도 반도체 업종 강세 요인. 그 외에 페이팔(+8.56%), 테슬라(+17.670%) 등도 상승세를 확대하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85.66	+0.24	홍콩恒生	26,797.95	+0.87
KOSDAQ	658.75	-0.03	영국	7,328.25	+0.93
DOW	26,805.53	-0.11	독일	12,872.10	+0.58
NASDAQ	8,185.80	+0.81	프랑스	5,684.33	+0.55
S&P 500	3,010.29	+0.19	스페인	9,391.80	+0.07
상하이종합	2,940.92	-0.02	그리스	873.98	+0.10
일본	22,750.60	+0.55	이탈리아	22,527.42	+0.7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아마존 시간 외로 7% 급락 중

MS(+1.97%)는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이런 가운데 램리서치(+13.90%)가 견고한 실적과 가이드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하자 AMAT(+8.98%), 마이크론(+5.46%)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7% 상승 했다. 한편,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페이팔(+8.56%)이 급등하자 비자(+2.83%), 마스터카드(+3.03%) 등도 동반 상승 했다. 테슬라(+17.67%)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급등 했으나 3M(-4.07%), 트위터(-20.81%) 등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 했다.

시간 외 실적을 발표한 인텔(+0.99%)는 양호한 실적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속에 시간 외로 4% 넘게 급등 하고 있으나, 아마존(+1.06%)는 부진한 실적과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35%에 불과해 경쟁 업체인 MS보다 낫다는 점이 부각되며 시간 외로 7% 급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3%	대형 가치주 ETF(IVE)	-0.15%
에너지섹터 ETF(OIH)	-2.18%	중형 가치주 ETF(IWS)	-0.11%
소매업체 ETF(XRT)	-0.14%	소형 가치주 ETF(IWN)	-0.55%
금융섹터 ETF(XLF)	-0.14%	대형 성장주 ETF(VUG)	+0.85%
기술섹터 ETF(XLK)	+1.46%	중형 성장주 ETF(IWP)	+1.0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94%	소형 성장주 ETF(IWO)	+0.14%
인터넷업체 ETF(FDN)	+0.24%	배당주 ETF(DVY)	-0.29%
리츠업체 ETF(XLRE)	-0.3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4%
주택건설업체 ETF(XHB)	+0.7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3%
바이오섹터 ETF(IBB)	+0.09%	미국 국채 ETF(IEF)	-0.02%
헬스케어 ETF(XLV)	-0.51%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25%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2.65%	Long/short ETF(BTAL)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5.50	-0.43%	+2.96%	-1.12%
소재	361.56	+0.37%	+0.16%	-0.39%
산업재	658.24	+0.12%	+0.63%	+0.31%
경기소비재	952.78	+0.05%	-0.95%	+1.05%
필수소비재	630.40	+0.28%	+1.30%	+0.56%
헬스케어	1,062.95	-0.60%	-0.21%	+2.36%
금융	473.26	-0.04%	+1.70%	+1.79%
IT	1,438.00	+1.48%	+0.36%	+1.48%
커뮤니케이션	169.48	-0.73%	-1.45%	+0.74%
유틸리티	329.07	+0.39%	+1.96%	-0.11%
부동산	247.52	-0.28%	+1.18%	+0.9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보합으로 마감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418 계약 순매수 한 가운데 0.10pt 상승한 277.7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4.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따라 변화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MS 의 클라우드 매출 증가와 램리서치 등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진행 되자 전일의 부진을 뒤로 하고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7% 급등하는 등 양호했다. 이 이슈는 전일 한국 증시에 일부 반영이 되었으나, 미 증시에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었기에 긍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0.99%)이 시간 외로 3% 넘게 상승하는 등 주변 여건도 나쁘지 않다. 물론 아마존(+1.06%)이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예상보다 느린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을 발표하며 시간 외로 7%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연준위원들이 주장하듯 통화정책 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를 언급했다. 일부 연준위원들에 이어 드라기 총재도 경기 확장을 위해 재정정책 시행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라가르드 ECB 총재(11 월 1 일 역임)도 독일 등 여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재정정책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 하기 때문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11 월 4 일 취임 후 첫 발언이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나, 다음 주 있을 FOMC 를 기다리며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일부 투자은행들이 다음 주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추가적인 인하를 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다소 매파적인 FOMC 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주택지표 전월 대비 둔화

9 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70.6 만건) 보다 감소한 70.1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69.8 만건) 보다는 양호했다. 주택 중간 가격은 29 만 9,400 달러를 기록해 전년(32 만 8,300 달러) 보단 낮았다.

9 월 내구재수주는 전월 대비 1.1% 감소해 전월(mom +0.3%)이나 예상(mom -0.7%)을 하회했다.

10 월 캔자스시티 제조업지수는 전월(-2.0) 보다 부진한 -3.0 으로 발표되었다. 기대지수(11→8)는 물론 생산 기대지수(5→2) 등 세부항목 모두 부진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불구 공급에 대한 우려 완화가 이어지며 상승했다. 12 월 OPEC 정례회담을 앞두고 최근 사우디 등이 원유 생산 축소를 언급하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일 EIA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은 오늘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유로 및 파운드화 약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존슨 영국 총리가 12 월 12 일 조기 총선 시행을 발표하자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코빈 노동당 총재가 이를 찬성하고, 더불어 조기 총선을 이유로 브렉시트 연기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다. 부진한 경제지표 결과와 영국 조기 총선 등이 혼재되며 방향성을 잃었다. 더불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재정정책 확대 위주로 언급해 금리 변화는 제한 되었다. 한편,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4 배)와 비슷한 2.46 배를 기록했으나 간접입찰률이 12 개월 평균(59.6%) 보다 큰 65.4%를 기록했다.

금은 지표 부진 여파로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혼조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3%, 철근도 0.21%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6.23	+0.46	+4.07	Dollar Index	97.686	+0.20	+0.08
브렌트유	61.67	+0.82	+2.94	EUR/USD	1.1103	-0.24	-0.20
금	1,504.70	+0.60	+0.43	USD/JPY	108.65	-0.04	-0.01
은	17.804	+1.27	+1.09	GBP/USD	1.2847	-0.50	-0.34
알루미늄	1,724.00	-0.35	-0.17	USD/CHF	0.9924	+0.18	+0.45
전기동	5,880.00	-0.02	+2.46	AUD/USD	0.6817	-0.53	-0.10
아연	2,491.00	+0.93	+2.13	USD/CAD	1.3074	+0.02	-0.48
옥수수	386.75	-0.26	-2.03	USD/BRL	4.0397	+0.08	-3.02
밀	516.00	-0.91	-1.81	USD/CNH	7.0725	+0.16	-0.12
대두	947.00	-0.13	+0.19	USD/KRW	1172.90	+0.04	-1.19
커피	96.45	-1.33	+3.82	USD/KRW NDF1M	1174.25	+0.36	-0.34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766	+0.18	+1.42	스페인	0.233	-1.40	+0.90
한국	1.637	-0.50	+5.70	포르투갈	0.180	-1.40	+0.60
일본	-0.139	-0.40	+1.20	그리스	1.227	-3.70	-15.00
독일	-0.404	-1.00	+0.40	이탈리아	0.904	-3.10	+1.60